

건축용 마감재도 수계화 바람

일본, 처음으로 수계도재 우위 ... 건축자재도 환경대응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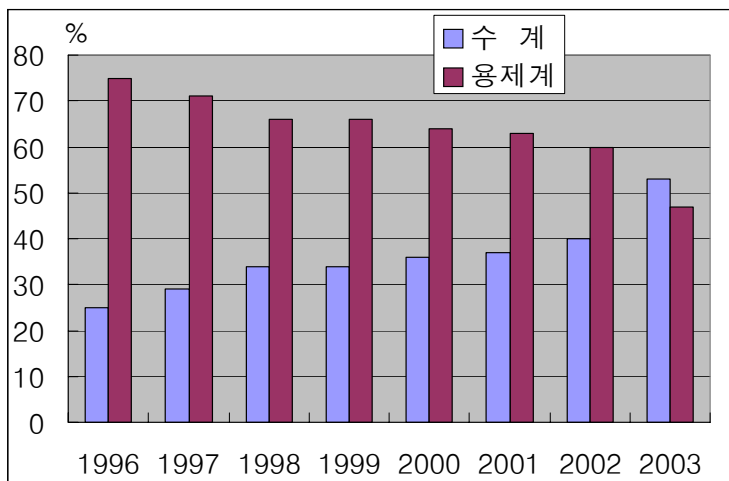
건축물의 내·외장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건축용 마감도재 생산량 비율에서 일본 통계상 처음으로 수계도재가 용제계상 도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건축마감재공업협회에 따르면, 7년 전인 1996년에는 상도재에서 수계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 용제계가 약 75%를 차지했으나 이후 용제계는 감소하는 반면 수계제품은 조금씩 늘어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13%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신장됐다.

이에 따라 용제계 제품과 수계제품의 생산비율이 역전됐다. 또 앞으로 수계제품이 더욱 신장될 것으로 전망돼 건축 마감도재도 수계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건축마감재공업협회는 매년 주요 건축용 마감도재, 보수재료 등의 생산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수계도재와 용제계 도재의 생산량 비율



2003년 건축용 마감도재 총 생산량은 29만5498톤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7년 전 주요 상도도재는 용제계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에멀전계 도재, 수성착색도재 등 시공 때 환경부하가 적은 수계상 도재로 전환되고 있고 메이커들의 수계제품 전개도 비율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생산량 중 수계제품이 약 40%를 차지해 199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수계제품이 크게 신장됨으로써 수계 52%, 용제계 48%로 수계도재가 용제계 도재를 웃돌게 됐다.

앞으로 법적 규제가 예상되는 일본의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동향 등에 입각해 2004년 이후에는 수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04>